

순창군, 정구메카 '재입증'

순창군 엘리트 정구선수들 장원배 중고 대회 등서 우수 성적 거둬

순창군 엘리트 선수들이 제24회 장원배 전국중고등학교 정구대회 겸 제27회 한중일 주니어 경기대회 파견 2차 선발전에 출전해 정구메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신고등학교 정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순창제일고 남자, 여자팀은 창단 이후 첫 단체전 동반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남고부 단식 서범규 선수가 3위, 여고부 복식 이정운, 권은희 선수가 3위, 단식 권은희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여중부에서는 순창여중이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복식에서 문선혜, 오은진 선수가 준우승, 단식 김태희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순창지역 엘리트 정구 선수들은 지난 3월에 열린 제40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의 메달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정구 선수들 외에 이들을 지도한 순창제일고 전병상 지도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선수들이 부족해 단체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몇 년간 순창 정구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점차 빛을 보고 있는 것.

지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은메달과 제40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 우승, 개인복식 우



순창군 엘리트 선수들이 제24회 장원배 전국중고등학교 정구대회 겸 제27회 한중일 주니어 경기대회 파견 2차 선발전에 출전해 정구메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승, 개인단식 3위를 이끌어 내며 명실상부 전국 고등부 최강자로 우뚝서며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

또한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 오는 5월 순창에서 열리는 2019 한국주니어 정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주위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전북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구종목 상위 입상을 위해 군청직장운동 경기부(정구)선수단이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강화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학부모·교사와 '학생 보호 공감 특' 호응

익산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별 비행 예방 활동 나서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개인별 담당하는 학교별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과 수시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 학생들의 말 못 할 고민 사항에서부터 각종 비행예방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활동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100여개 되는 학교를 전담 경찰관 7명을 적정배정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특별예방교육은 기본 학생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보호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고있는 학부모와 교사들과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해법을 적기

에 제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와 지도교사는 "학교가 주가 되어 학생들지도보호가 제대로 되는 것이 우선 맞지만 경찰관의 적절한 마중물 역할이야말로 더없이 중요 하였고 특히 학생 문제 해결에 학부모와 교사가 자연 스럽게 하나가 되어 생각의 차이 최소화 나간다는 것 역시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전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중 배터랑급인 신광철 경위는 "내 자녀와 같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 신제적으로 학부모님들과 교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거쳐 보다 지혜로운 처방을 도출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현수 익산서장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경찰관과 학부모, 교사가 하나가 되어 학생들 문제를 제대로 접근 해결해 나간다면 그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고 참된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 이기에 내 자녀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정읍시, 학교폭력 예방 특강 6월까지 진행

정읍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학교폭력 예방 특강은 지난달 11일 이평중학교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학교폭력의 실사례를 중심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춰 예방 교육이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학교폭력 예방 특강은 6월까지 초등학교 14개교와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모두 28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심리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되고 있다"며 "피해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특강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애인 복지시설서 장애인 격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18일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무지개 가족을 찾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문은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격려하며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근 전북본부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재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이 있어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 같다"며 "장애인분들도 앞으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당히 지내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구성원인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올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의 기회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27명의 장애인 특별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김영태 기자



원광대, 예비교사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내 프리인관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로서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교원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간단한면서도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습득을 통한 생명존중 의식 및 인성함양 확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원광대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대학혁신사업단이 지원한 이번 교육은 차수별로 최대 12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이론교육 1시간을 비롯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2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스포츠안전재단 강사 4명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완료 후에는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영근씨, 예수병원 발전기금 500만원 후원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 이영근씨가 우리 지역의 의료 발전을 위한 예수병원 안센터 건축에 써달라며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영근씨는 18일 "진료를 받기위해 예수병원을 찾았다가 현재 진행 중인 예수병원의 안센터 건축을 위한 후원 모금 안내문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한 예수병원원에게 더 크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센터 건축 후원금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예수병원 권정영 병원장은 "의료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예수병원원들이 지역사회 주민에게서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영태 기자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대표, 군산서 특강

평생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 한 군산시가 농업, 자녀교육, 건강, 자기개발 등 여러 분야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두 번째 강의로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시 힘을 내는 법' 특강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미경 강사는 독특하고 유쾌한 강의로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하고 순간 가슴을 쓸어내리게도 하는 등 강의시간 내내 공감의 이야기를 전했다.

김 강사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맹목적으로 질러 보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소방서, 강원도 이재민 돕기 나서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직원들이 초대형 산발로 인해 타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할만 온정의 손길을 모아 귀감이 되고 있다.

기부된 성금은 19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긴급구호물자, 생활품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구창덕 서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성금이 산발로 피해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경찰-익산문화재단, 문화사업 범죄예방 환경 개선 협약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와 익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장성국)은 18일 오전 10시경 익산문화관광재단 2층 회의실에서 문화사업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 등 공동체치안 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업무협약 체결하고 손을 잡았다.

이번 행사에는 박현수 익산경찰서장과 곽노주 생활안전과장, 범죄예방전담팀(CFO), 장성국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과 이태호 사무국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범죄예방 정책 추진과 익산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관광사업 등 양 기관 간의 업무에 관한 협조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교통안전 홍보물품 기증식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종찬)와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교통취약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익산경찰서에서 18일 '교통안전 홍보물품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되는 교통안전 홍보물품은 야간에 이동하는 교통취약 노약자와 농기계 등에 부착되는 고휘도 반사지로 차량의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운행자가 빠르고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안경찰 마이피츨소, 보이스피싱 안내 마을 방송

진안경찰서 18일 마이피츨소(소장 최양환)는 최근 관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 마을 곳곳을 방문하여 마을 방송을 실시했다.

최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금 대출전환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검찰, 경찰청이라고 하면서 돈을 찾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지인을 핑계로 해외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보이스 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양환 소장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법을 설명하고, 이장님들과 합동하여 마을 방송도 병행,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